

# 청동기시대 장송의례의 재인식

윤호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청동기시대 장송의례의 재인식

- 인도네시아 숭바섬 지식묘의 장송의례 비교를 중심으로 -

윤호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형태와 구조             |
| II. 인도네시아 숭바섬의 지식묘 | III. 숭바섬 지식묘와 한국 지식묘의 |
| 1. 자연환경 및 사회구조     | 축조과정 및 장송의례 검토        |
| 1) 자연환경 검토         | IV. 맺음말               |
| 2) 사회구조 및 전통신앙     |                       |
| 2. 지식묘의 입지 및 구조 검토 |                       |
| 1) 입지 및 배치형태       |                       |

## I. 머리말

고고학의 연구주제는 주로 물질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옛사람들의 사상체계를 밝혀보려는 시도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청동기시대 무덤연구도 주로 외형적 형태와 구조,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무덤을 둘러싼 사회구조나 정신적인 문제(장송의례, 내세관, 세계관) 등은 많이 다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덤자료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축적되었으며, 특히 ‘인지과정고고학(Cognitive-processual Archaeology)’<sup>1)</sup> 영향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 다루게 될 “장송의례(葬送儀禮)”은 무덤에 나타난 다양한 물질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당시의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장송의례 양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것은 장송의례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가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도 당시에 사용했던 원래의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 1990년대 초에 콜린 렌프루(Colin Renfrew)가 주창하였다. 인지과정고고학(Cognitive-processual Archaeology)은 인간의 물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 예술품, 기타 물건 등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것들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고고학 자료의 객관성이나 유물론적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과거 사람들의 사상체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최몽룡·최성락편 1997: 304-332).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장송의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덤과 관련된 다양한 고고자료를 재인식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민족지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의 의례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유추하거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석묘를 중심으로 장송의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와 고고자료를 재검토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슴바섬 지석묘”<sup>2)</sup>의 민족지자료와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한국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축조과정과 장송의례 복원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 II. 인도네시아 슴바섬의 지석묘<sup>3)</sup>

### 1. 자연환경 및 사회구조

스름바섬의 지석묘와 한국의 지석묘를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석묘를 축조하는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석묘가 시신을 보관하는 시설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망자를 현실세계에서 사후세계로 떠나보내는 일련의 의례과정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망자의 영원한 안식처인 무덤을 어떤 장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집단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사회구조는 지석묘 축조나 장송의례의 기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에 먼저 슴바섬의 자연환경과 사회구조 및 문화(신앙)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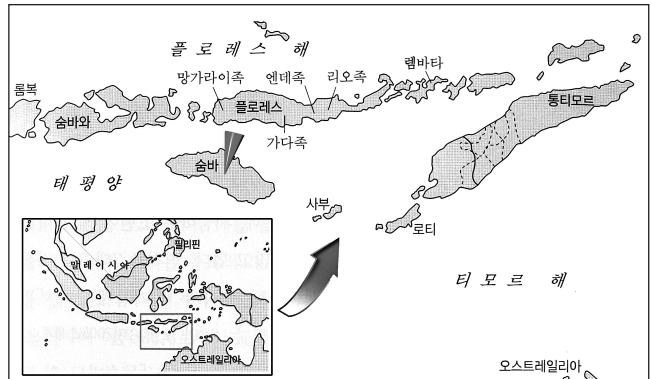
#### 1) 자연환경 검토

스름바섬과 한국의 자연환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슴바섬은 적도 부근에 자리 잡은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소순다열도에 속하며, 석회암의 용기로 생겨난 섬이다. 행정구역은 동스름바와 서스름바로 나누어지며, 크기는 동서 길이 210km, 남북 길이 40~70km로 총면적은 11,587 km<sup>2</sup>(제주도의 약 6배)이다. 인구는 약 56만 명(2005년 기준)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동스름

2) 인도네시아 슴바섬의 지석묘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도 지석묘가 축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외형적 형태와 구조가 한국 지석묘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사회구조와 문화도 농경과 해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어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한국 지석묘의 축조과정과 장송의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슴바섬은 17세기까지 선사시대(금속기)의 사회상이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옛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슴바섬의 지석묘는 살아있는 고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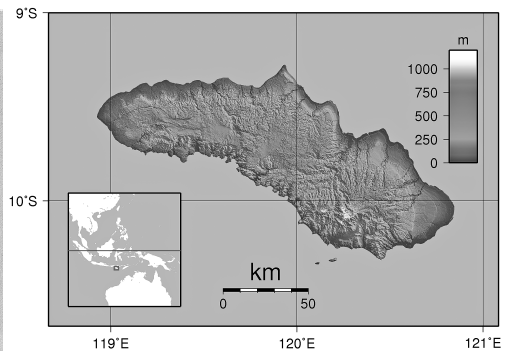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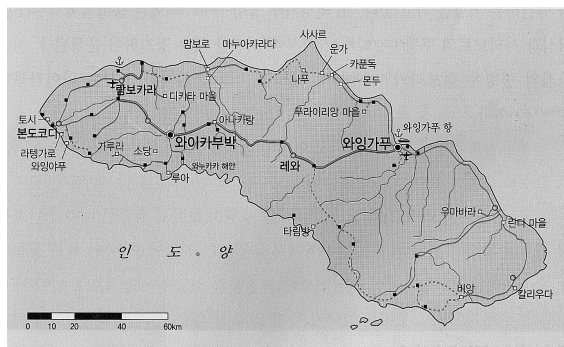
3) 슴바섬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곳이 아니라 관련 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소개서 정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슴바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함께 지석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슴바섬에 관한 민족지자료와 연구 성과는 주로 Ron L. Adams(2007a·2007b)와 가중수(2009)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는 필자가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바가 7:3 정도로 넓으나, 인구는 서수바가 2배 정도 많다. 지질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은 동남쪽에 높은 산지가 있어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배가 다니기는 어렵다. 기후는 기본적으로 건기(4~9월)와 우기(10~3월)가 뚜렷한 열대성 몬순기후로 고온다습하고 다우림 지역이다. 기온은 연평균



〈그림 1〉 인도네시아 수바섬 위치(가중수와 2009)

군 25~28℃이나, 지역과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對外經濟政策研究院·地域情報센터 1994: 29-31; 가중수와 2009: 36-39). 한국은 대륙과 연결된 반도에 위치하며, 지질형태는 화강편마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형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높은 산들이 동쪽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하천이 발달하여 하천퇴적지형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지역 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이 섬이 분포한다. 기후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4계절이 나타나는 온대성 기후로써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강수는 여름에 집중되며,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온다. 또한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가 있다.



〈그림 2〉 수바섬의 지형(가중수와 2009)

전체적으로 양 지역의 자연환경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서는 한국의 여름철 기후가 고온다습하여, 우기시 수바섬의 기후와 비슷하며, 지형에서도 산지가 많고 바다와 접해 있는 것이 비슷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모든 환경적 요소가 같지는 않지만 일부 비슷한 환경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취락형성이나 사회구조, 사상(전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회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그 나름의 특징적인 구조나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습바섬은 현재도 선사시대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자연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지식묘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 지식묘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습바섬의 자연환경적 요소와 특징을 취락, 지식묘, 사상, 생업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습바섬의 자연환경적 요소와 특징

	자연환경적 요소	특 징	비 고
위 치	섬	-고립된 지역. -외부로부터 접근이 어렵고 방어에 유리함.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 -해양(바다)문화와 관련성이 깊음 -바다와 관련된 사상이 많음.
지 질	석회암	-농사가 어려운 지역이 많음. -암반이 무름.	-채석 및 석재가공이 쉬움.
지 형	-동남쪽이 높은 산지로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은 발달하지 못함.	-지형적 영향으로 기후의 차이가 있음. -지역별 지형의 편차가 심함. -하천을 통해 배가 다니지 못함.	-취락입지 및 분포(밀집도)에 차이가 있음. -소지역별 독립적인 문화와 세력을 가지며, 언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음. (동습바는 약간의 언어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해가 가능하나, 서습바는 지역차가 크고,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언어가 사용됨) -농경은 조건이 맞는 일부지역에 편중됨.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 배를 이용한 교통로가 되지 못함.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무풍 -다우림지역 -연평균 25~28℃ -건기 4~9월, 우기 10~3월	-동습바: 사바나기후, 비가 적은 건조한 지역이 많고 더움. 우기에도 강우량이 많지 않음. -서습바: 열대우림	-취락입지: 고지대 입지 -가옥형태: 고상가옥 -지역에 따라 기후양상이 달라 수량의 편차가 큼. 따라서 생업형태가 달라짐.(농업, 목축업) -주 생업은 농업(벼농사) 위주가 되며, 독창적인 농경방법인 제경을 사용함. -농업에 따른 씨족사회로 부계사회의 형태와 농경관련 의례가 발달함. -동습바: 물부족. 어려운 자연환경으로 가축과 직물이 주된 산물. 가축은 닭, 물소, 소 등이 사육되며, 이중 말이 주요 수출품임. 물소는 제사용으로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수직물은 아름다운 색채와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문양은 주술적 성격을 가짐. 이러한 문양은 지식묘에도 사용됨. -서습바: 벼농사 중심. 자급자족할 정도의 쌀이 수확되지만 대부분은 화전경작으로 옥수수, 콩, 커피를 재배함. 물소를 이용한 논갈기 방법인 제경을 사용함.

숨바섬은 동숨바지역과 서숨바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들 지역은 지형 및 기후환경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취락형태나 생활모습은 비슷하나 생업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숨바섬은 주변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렵고 방어에 유리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하겠다. 특히, 자신의 선조가 외부(하늘, 바다)에서 들어왔다는 사상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과 동시에 해양문화와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가중수의 2009: 74-76). 지형 및 기후 양상은 취락의 형성과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 고원지대와 초원지대, 하천의 미발달 등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와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열대성 기후로 가옥은 지면과 떨어진 고상 가옥이 발달하였고, 생업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를 만들게 되며, 이는 조상신 숭배와 더불어 농경관련 의례의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조상신 숭배와 농경의례는 한국의 청동기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상적 배경으로 본고에서 살펴볼 지식묘의 장송의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성과를 보면 숨바섬 사회와 비슷한 결과들이 확인된다. 즉, 씨족이 마을의 기반이 되며, 조상신을 숭배하고, 생업은 농경(논과 밭)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은 큰 틀에서 보면 숨바섬과 한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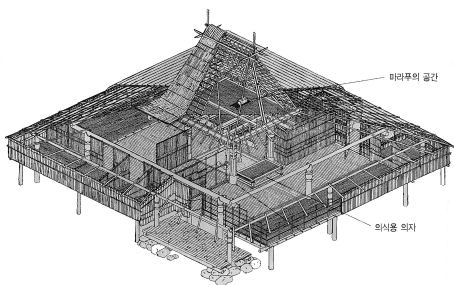
## 2) 사회구조 및 전통신앙

숨바섬의 정치체제는 국가나 왕국과 같은 체계를 가진 사회가 아니라 작은 부족들이 난립하는 '수장사회'이다.<sup>4)</sup> 수장사회는 여러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핵마을과 주위의 분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장은 자기 출신 집단 이외의 여러 집단을 통치하는 경우가 적고, 그 지위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한다. 수장사회는 동숨바와 서숨바가 차이가 있는데, 동숨바는 비교적 계층분화가 잘 이루어져 수장(Raja), 귀족(Maramba), 신관(Rato), 평민(Tau Kabihu), 노예(Ata) 등의 신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서숨바는 동숨바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계층분화가 덜 이루어져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신분계급이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았을 뿐 서숨바에도 수장, 신관, 평민, 노예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가중수의 2009: 106). 이러한 신분제도는 네덜란드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인 19세기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수장의 권한이 한정적이었으나 식민지시대에 네덜란드와 결탁한 '라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실제로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신분에 따른 무덤축조의 양상이 급격하

4) 숨바섬에서 수장사회란 1) 수장이라고 하는 세습되는 공직, 2) 수장이 속해 있는 출신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적 사회질서, 3) 수장이 여러 촌락의 영역을 지배 라고 하는 세 개의 요건을 갖춘 사회를 말한다(가중수의 2009: 99).

게 변화되는 것도 식민지시대 이후라 할 수 있다.<sup>5)</sup>

숨바섬의 전통신앙 중 가장 주요한 개념은 “마라푸(Marapu)” 로 일반적으로 “조상” 의 의미로 쓰이며, 숨바인들이 신봉하는 전설상의 시조이자 조상이 사는 세계를 가리킨다. 숨바인은 인간은 마라푸계에서 와서, 사후에 다시 마라푸계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그들의 생활속에는 항상 마라푸계와 소통하는 의례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는 주거공간인 가옥의 가장 높은 곳인 지붕 아래에 ‘마라푸신’ 이 사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라푸’ 라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지석묘 축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된다. 즉, 지석묘의 축조행위가 마라푸신앙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조상신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해양(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배(舟)” 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숨바섬 사회에서 ‘배’ 의 의미는 주변의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배’ 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이승과 저승(조상의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망자의 영혼이 배를 타고 건너온 조상들처럼 다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송의례는 인간이 그 항해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의미로 생각한다. 이러한 배의 상징적 개념은 가옥의 형태, 무덤, 마을의 구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가옥에서는 지붕의 용마루가 높이 솟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며,<sup>6)</sup> 집 자체가 거대한 배를 표현한다. 무덤은 망자를 운반하는 ‘영혼의 배’ 로 인식되기 때문에 땅에 직접 매장하지 않고 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 또한 취락내의 제장에 있는 지석묘를 ‘암선(岩船)’ 이라 부르며, 지석묘 위에 설치된 펜지 레티(Penji Reti)는 배의 돛을 의미한다. 마을구조 자체를 배의 상징으로 인식하거나 몇 개의 마을을 묶어 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가중수의 2009: 109-115).



〈그림 3〉 숨바섬의 가옥(가중수의 2009)

5) 숨바섬 사회 구조에 대한 내용은 숨바섬 사회와 한국 지석묘 사회를 비교 연구한 이동희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동희 2011)

6) 민족학에서는 이러한 지붕형태를 ‘주형(舟形) 지붕’이라고 하여, 기원전 인도차이나 반도에 번창한 ‘동손문화’ 와 연결시키기도 한다(가중수의 2009: 109).

## 2. 지식묘의 입지 및 구조 검토

### 1) 입지 및 배치형태

마을의 입지는 크게 평지와 구릉으로 나누어지며, 오래된 마을 일수록 구릉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평지에 입지한 경우는 해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이나 이 경우에도 주변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입지하거나 마을의 외곽에 담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습바섬에서 식수해결이나 경작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구릉입지를 선호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방어에 유리한 곳에 입지함으로써 마을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시대 이전에 벌어진 잦은 촌락간의 전쟁 때문으로, 항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하고 정글의 세력이 약해서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성 취락의 형태는 습바섬 마을의 특징적인 입지 형태로 생각된다.

지식묘의 입지는 주거지와 무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습바섬 취락의 특징으로 볼 때 마을의 입지와 같다고 하겠다. 다만 마을내 배치형태는 마을이 입지한 지형 및 축조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지식묘가 배치되는 공간은 마을의 제장(祭場)으로 사용되는 거석광장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마을의 중앙에 배치되며, 주거지는 이 거석광장을 중심으로 외곽에 배치된다<sup>7)</sup>. 하지만 마을이 입지한 지형이 좁고 긴 형태의 구릉정상부일 경우나 시기적으로 오래된 마을에서는 거석광장이 조성되지 않거나 주거지와 가까운 일정 공간에 독립적으로 군집되어 배치된다.

### 2) 형태와 구조

무덤은 기본적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형태분류에 앞서 시신의 매장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 습바섬 지식묘의 매장주체부 위치는 크게 지하공간(I형), 지면에서 개석아래까지의 공간(II형), 개석 상부공간(III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sup>8)</sup> 이중 I형과 II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개석 상부에 설치되는 III형은 낮은 평지에 입지하는 지식묘나 19세기 이후에 조성된

7) 습바섬 마을의 구조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배'의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크게 3개의 구성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거석광장을 사이에 두고 2열로 배치된 가옥군, 2) 거석광장을 중심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배열된 가옥군, 3) 촌락이 3개의 주요 구역으로 분할되어 각각 배의 선두, 중앙, 선미로 불리는 것 등이다(가중수의 2009: 111).

8) 습바섬 지식묘 형태는 한국 지식묘의 종류만큼 다양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 조영되고 있는 지식묘 외에는 발굴조사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조성된 무덤인 경우는 매장주체부의 재료나 형태,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외형적인 형태를 통해 전체적인 축조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아직 구조적인 형식의 변천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습바섬 지식묘의 형식과 조영과정의 확산에 대해서는 조진선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조진선 2010).

라자의 무덤들로 파승가 마을, 카본독 마을, 갈리바쿨 마을 등에서 일부 확인된다. 외형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의 4가지 분류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솜바섬의 지식묘에 맞는 분류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탁자식 지식묘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솜바섬의 경우는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지상과 지하 모두에 위치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지하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탁자식 지식묘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기반식 지식묘의 경우에도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솜바섬의 경우는 지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구조적으로도 육면체의 석재 내부를 파내어, 상자형태로 매장주체부를 만든 구조는 한국에서는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외형적인 형태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식묘 분류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무리가 있다. 솜바섬 지식묘에 대한 새로운 분류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개념정립 보다는 외형적인 형태만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솜바섬의 지식묘는 매장주체부가 육면체 석재의 내부를 파낸 상자형태인 경우와 상석 상부에 매장주체부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한다. 즉, 상석을 받치는 지석이 기둥형태(사각형, 원형)이든 벽석형태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매장주체부의 위치는 지하인 것이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위치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분류할 경우 지상식은 두 가지 경우뿐이며, 외형적 형태도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상석의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로서 예외적인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식은 매장주체부가 상자형태인 경우 하나 뿐 이다. 이렇게 볼 때 솜바섬 지식묘의 형식분류는 지하식의 형태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솜바섬의 지식묘는 “추가장”을 전제로 축조된다는 것이다. 한국 지식묘의 경우 추가장의 형태가 극히 일부 확인된 바 있지만 기본적인 축조형태는一回性이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매장주체부의 개석을 다중개석으로 설치하거나 상부를 흙이나 돌로 가득 채워 추가장이 불가능하다. 추가장을 전제로 축조할 경우 지식묘의 구조가 매장주체부의 개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형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상석이 설치된 지식묘에서 지하에 위치한 매장주체부를 용이하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매장주체부와 상석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즉, 매장주체부를 다시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상석은 한번 설치되면 재이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식묘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매장주체부 만을 개방하는 것이다. 상석과 매장주체부의 사이공간은 지식과 벽석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을 경우는 상석을 직접 이동해서 처

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상석의 형태 및 규모와 더불어 지식과 벽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습바섬 지식묘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은 정형화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 및 구조에서 정형화된 형태와 구조로 변화하면서 추가장이 용이한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보여 진다. 즉, 지식은 자연석에서 가공된 지식(원형이나 방형)으로 변화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 지식의 길이도 길어진다. 벽석은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의 지식에 판석이 덧대어져 재축조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식+판석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만 사용하던 단계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벽석으로 축조할 경우 추가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벽석에 추가장을 위한 문을 만들거나 한쪽 벽석을 쉽게 빠지도록 설치한 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대체적으로 오래된 지식묘 보다는 근세인 19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식묘의 정확한 형식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묘의 대체적인 축조양상은 왕(라자)이나 귀족들은 지식이 있고 규모가 큰 지식묘를 축조하였으며, 평민은 상자형태의 지식묘나 낮은 지식을 가진 지식묘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 Ⅲ. 습바섬 지식묘와 한국 지식묘의 축조과정 및 장송의례 검토

습바섬 지식묘와 한국 지식묘는 기본적으로 형태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축조과정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장송의례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나 전통사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따라서 한국 지식묘의 장송의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식묘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축조과정과 장송의례 과정을 모델화하고, 이를 현재도 축조되고 있는 습바섬의 지식묘를 통해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지식묘의 축조과정과 장송의례에 관한 모델화는拙稿(윤호필 2007)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9) 기본적으로는 다른 환경이지만 일정부분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조과정이나 장송의례 복원에 다양한 관점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국 지석묘 축조과정 및 단계별 의례양상 모델(윤호필 2007)

축조단계	축조과정	단계별 의례	의례내용	
I 단계	① 묘지선정	산천의례 (山川儀禮)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신성한 지역으로 만들. 묘구 보호를 기원. 집단의례가 행해짐(산신제, 수신제 등).	
	② 묘구조성	지신의례 (地神儀禮)	지신에게 묘구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묘구를 성스럽고 특별한 장소로 인식시킴. 집단의례가 행해짐.	
	③ 묘역선정 및 정지	정지의례 (整地儀禮)	땅에 대한 의례. 지신에게 피장자의 죽음을 알리고 시신과 영혼을 보호해 달라는 기원. 사회구성원들에게 피장자의 무덤영역을 알림.	
	④ 채석	채석의례 (採石儀禮)	무덤재료의 공급원으로서의 감사의례. 채석작업의 안전기원.	
	⑤ 석재운반 (상석, 벽석, 바닥석 등)	運搬儀禮	운반시작 상석정화(상석이동에 앞서 씻음) 및 안전사고 상기. 운반과정 안전기원. 피장자의 죽음과 사회적 지위를 알림. 협동작업에 따른 격려와 보상. 운반도착 입석허가. 애도표시. 협동작업에 따른 격려와 보상.	
II 단계	개석식 지석묘	① 묘광파기	천광의례 (穿塋儀禮)	땅에 대한 의례(開土祭, 后土祭). 방향 및 규모설정(내세관).
		② 바닥석 및 벽석 (4벽)설치	축조의례 (築造儀禮)	시신보호. 부정을 막음. 벽사의미. 영생의미.
		③ 시신안치 및 유물부장	매장의례 매납의례 (埋葬儀禮 埋納儀禮)	매장의례: 장송의례, 시신 운반의례, 매장방법(처리방법, 두향, 자세 등), 부정방지 및 벽사. 매납의례: 내세관, 사후세계에 필요한 물품공급. 부장유물을 통해 사회적 지위 표시.
		④ 매장주체부 내부 채우기	밀봉의례 (密封儀禮)	시신보호. 부정방지. 벽사.
		⑤ 개석 덮기	밀봉의례 (密封儀禮)	시신보호. 생자와의 단절.
		⑥ 개석상부 채우기	밀봉의례 (密封儀禮)	매장주체부 보호. 부정방지. 벽사.
		⑦ 지석 및 상석농기	상석의례 (上石儀禮)	축조성공과 안전을 기원. 안녕과 풍요기원. 협동작업에 따른 격려와 보상
		⑧ 묘역시설 설치 (敷石, 鋪石, 積石)	묘역의례 (墓域儀禮)	무덤의 영역표시. 무덤 공간인식. 외경의식. 축조 후 제사공간 활용.
	탁자식 지석묘	① 바닥석 및 벽석(3벽) 설치	축조의례 (築造儀禮)	시신보호. 부정을 막음. 벽사의미. 영생의미
		② 상석농기	상석의례(上石儀禮)	축조성공과 안전을 기원. 안녕과 풍요기원. 협동작업에 따른 격려와 보상
		③ 시신안치 및 유물부장	매장의례 (埋葬儀禮) 매납의례(埋納儀禮)	매장의례: 장송의례. 시신운반의례. 매장방법(처리방법, 두향, 자세 등). 부정방지·벽사. 매납의례: 내세관. 사후세계에 필요한 물품공급. 부장유물을 통해 사회적 지위 표시.
		④ 마구리돌 설치	밀봉의례 (密封儀禮)	시신보호. 생자와의 단절.
		⑤ 묘역시설 설치 (敷石, 鋪石, 積石)	묘역의례 (墓域儀禮)	무덤의 영역표시. 무덤 공간인식. 외경의식. 축조 후 제사공간 활용.
	III 단계	묘구(묘역)관리·보수 (별초 및 보수작업)	제사의례 (祭祀儀禮)	조상숭배. 피장자의 인식. 사후제사. 집단의 영역표시 및 관리.

〈표 2〉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개석식 지석묘와 탁자식 지석묘를 중심으로 축조과정과 단계별의례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sup>10)</sup> 지석묘 축조과정은 크게 3단계로 설정하였다. I 단계는 피장자를 매장하기 위한 준비단계(묘지선정~석재운반)이며, II 단계는 피장자를 매장하고 무덤의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단계(매장주체부 및 묘역 설치)이며, III 단계는 완성된 무덤을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들 각 단계는 세부적인 축조단계를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축조양상을 설정하였다. 장송의례는 이러한 세부적인 축조단계에 맞춰 이루어지게 된다. I 단계의 의례는 주로 무덤이 들어설 땅과 무덤의 재료가 되는 석재의 채석과 운반에 관한 의례이다. 따라서 먼저 땅의 신인 ‘地神’에게 무덤의 존재와 영역을 알리며, 무덤의 재료가 되는 성스러운 석재와 더불어 안전한 채석과 운반에 관해 기원한다. II 단계는 시신이 안치될 매장공간의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따라서 ‘地神’에 대한 의례와 함께 축조과정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시신보호와 부정방지를 위한 의례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의 안치를 통해 사자를 현실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으로 사자를 위한 의례가 가장 많이 행해진다. 또한 시신이 안치될 공간의 위치에 따라 의례양상이 차이가 나타난다. 개석식 지석묘는 시신을 지하에 매장하기 때문에 땅을 관장하는 지신에 대한 의례와 시신을 안치한 후 이어지는 밀봉의례가 주를 이룬다. 이는 시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현실세계와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서 영원히 현실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탁자식 지석묘는 시신이 지상에 매장되기 때문에 매장주체부의 축조가 중요한 의례가 된다. 이처럼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피장자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피장자의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즉, 지석묘를 통한 경관의 의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석식 지석묘와 탁자식 지석묘는 피장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III 단계는 무덤의 관리 및 보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자에 대해 기원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지석묘의 장송의례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각 단계별 축조과정에 설정된 장송의례 양상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숭바섬 지석묘를 통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숭바섬 지석묘 축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비용이 많이 든다. 둘째, 축조기간이 길다. 셋째, 석재의 강도가 약해 채석과 문양 조각이 용이하다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석묘가 거대한 석재를 이용한 무덤형태이므로, 석재의 채석과 이동은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이 지석묘 축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축조가 진행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조금씩 작업을 진행시키게 되며, 대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석재의 강도는

10) 여기에 설정되지 않은 기반식 지석묘는 개석식 지석묘의 축조과정에서 지석 설치과정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위석식 지석묘는 기본적으로 탁자식 지석묘와 형태는 다른지만 축조과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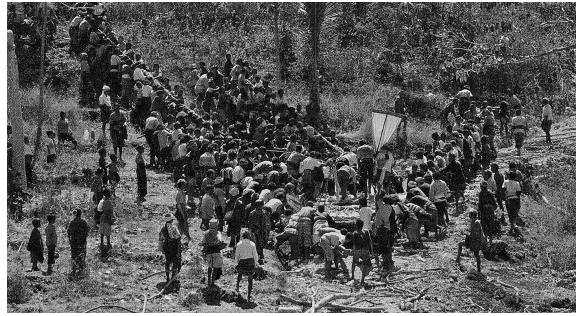
〈표 3〉 숨바섬 지식묘의 축조과정

축조 단계	축조과정	특징
I 단계	묘지선정	- 마을입지와 같음, 고지성 방어취락.
	묘구조성	- 제연장소, 거석광장, 원형 또는 2열 배치. - 마을의 중앙 또는 주거지와 가까운 일정 공간.
	묘역선정 및 정지	- 일정한 구역을 가짐.
	채석	- 경제적 능력이나 신분에 따라 석재의 질이 달라짐. - 채석은 전문 석공에 의해 이루어짐. - 작업 중 일이 있을 때면 물소나 돼지가 제물로 바쳐짐. - 석재가 채석된 후에 신관들이 모여 개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침(채석한 돌에 대한 감사의 대가를 마라푸신에게 지불하는 의미).
I 단계	운반 시작	- 석재운반용 '수라' <sup>11)</sup> 를 제작하여 채석장으로 옮김(수라는 'Y'형으로 만들며, 앞부분은 조상신 '마라푸'를 나타냄. 수라를 '말머리(Kabang)' 또는 '배(Tena)'라고 부름. 사용되는 나무는 '낭카'로 세번째로 신성한 나무임). - 운반의 시작은 '신관'에 의해 운반 일정이 결정된 후 시작됨. - 다섯 명의 '라토'들이 숲속에 들어가 마라푸신에게 행사의 안전을 기원함(한 마리의 닭과 돼지가 도살됨. 도살된 닭과 돼지의 생간을 통해 석재운반의 길흉을 점침) - 수라에 석재를 실고 칩닝쿨로 매고, 마로 다시 엮어서 견고하게 함. - 상석의 중앙에는 남성용 직물 이삭을 깃발처럼 세움('펜지'라 불리며, 배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석 끌기를 할 때 마라푸와 교신하는 것으로 거석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의 원천이 됨). - 상석 끌기가 시작되면 라토는 펜지 가까이에서 상석 끌기를 지휘함. - "오, 우리 선조여, 여기에 내려 와서 우리와 함께 돌을 끄시다"라고 외치면서 상석 끌기를 시작함.
		운반 과정
	도착	-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축조자와 신관들이 나와 정식으로 맞이하고, 신관 한명이 상석에 공물을 놓고 마라푸에게 기원을 올림(마을에 들어가는 의식). - 석관 가까이까지 옮겨짐.
II 단계	상석놓기	- 석관에 상석을 올릴 수 있도록 통나무를 이용하여 지주대와 활주로를 만들. - 수라에 실린 상석을 풀어 활주로에 걸친 다음, 상석을 끌어올리는 의례가 시작됨. 신관이 개석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닭의 심장으로 점을 침. 길흉이 판단되면 말이 제물로 바쳐지며, 개석에는 직물과 다른 공물이 마라푸에게 바쳐짐. - 신관의 구호에 따라 상석이 옮겨지며, 그 후 가설된 통나무들은 철거됨.

11) 수라는 거석을 실어 나르는 썰매라는 뜻으로 숨바어로는 "돌의 말"이라고 하며, 'Jara Batu'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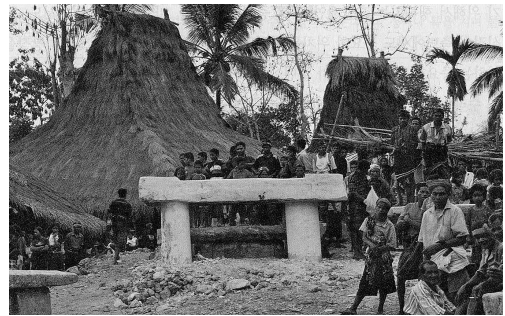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그림 4〉 숨바섬 지식묘의 축조과정(상석 끝기)(가중수외 2009)

주로 응회암이나 사암 종류로서 강도가 약해 조각이 용이하여, 다양한 의례적 표현을 할 수 있다. 주로 상석 위에 설치되는 펜지 레티(Penji Reti)에 잘 나타난다.

숨바섬의 지식묘도 그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여, 축조과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한국 지식묘와 같이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즉, Ⅱ 단계에서 형태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축조과정이 있지만 크게 보면 무덤의 외형적인 틀을 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지식묘의 축조과정에 맞추어 “상석 끝기”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에서 전체적인 축조과정은 아니지만 ‘상석 끝기’를 통해 지식묘 축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의 대략적인 양상은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국 지식묘 축조모델에서와 같이 상석정화, 안전기원, 입석허가, 협동작업에 따른 격려와 보상 등의 의례가 세부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송의례의 주관은 모두 신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이다. 축조자나 참여자는 신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신관이 길흉을 점치면서 축조과정을 이끌어 간다. 또한 의례는 각 단계별로 一回性 행사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4〉 솜바섬 지석묘의 장송의례의 흐름(가중수외 2009: 120-142).

단계	솜바섬 지석묘의 장송의례의 흐름
1. 죽음	-시신은 가족의 재력에 따라 금은의 장식품을 몸에 부착시킨 다음 옹크린 자세(蹲踞)로 해서 천(Ikat)으로 겹겹이(8장의 직물을 이용) 싸 놓음. - '바보룬' (뭍음)이라는 의례로 물소 한 마리가 제물로 바쳐짐.
2. 입관	-시신 입관에 사용되는 것은 최근에는 목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관은 몇 장의 천으로 한 번 더 싸여짐. 관은 장례식 날까지 사망자는 자신의 집안에 제일 큰 오른쪽 방에 안치되어 생전과 같은 생활을 보냄. <sup>12)</sup> -장례식 개최준비는 시간과 경제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통 수개월 이상이 소요됨. 장례식 준비란 친족 여자는 직물, 친족 남자는 말이나 소, 물소를 준비하며, 상주 측은 많은 수의 조문객을 수용해 대접하기 위한 임시가옥과 식량을 확보함. <sup>13)</sup> 지석묘의 조영도 장례준비의 일환임. <sup>14)</sup>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석묘를 축조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 2차장이 일반적임. 따라서 대부분 빈(殯)을 설치하여 2차장을 함. 빈은 신분이 높은 경우는 관습가옥이나 거석광장 일각에 큰 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평민의 경우는 초분에 시신을 안치함.
3. 장례식	-사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남자 3명과 여자 3명의 "파팡강(papanggang)"을 둔다. <sup>15)</sup> -장례는 거석광장에서 행해지며, 사망자의 지위와 부에 따라 말이나 물소를 도살해 제연(祭宴)이 행해짐. 제의는 사망자의 지위와 부에 따라 도살되는 말이나 물소 수가 다름. -장례식 날 아침, 수십 명의 친족들이 동으로 된 징이나 북을 치며 물소를 선두로 마을에 들어옴. 맨 먼저 죽은 자의 집까지 가서 조의를 표함. 조문객은 관습가옥의 베란다에 안내되어 각각 접대를 받음. -오후까지 친족과 지인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조문객들은 우선 상주 측에게 조문인사를 한 뒤 대변자를 통해 조문품을 전달함. <sup>16)</sup> 말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이 베어져 제물로 바쳐짐. -저녁 때 지석묘 앞에서 '신관'에 의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함. 사자를 안치한 가옥 안에서는 마지막 이별이 행해지며, 그 후 남자들에 의해 관이 운반되어 지석묘에 입관. -시신 위에 엽직물이 놓이고, 뚜껑이 덮임. -입관 후 제연광장을 둘러싸듯이 사람들이 원진을 만들어 물소의 공희제(供犧祭)가 시작됨. 제물로 바쳐지는 가족의 도살은 성수인 8을 기준으로 16, 24, 32의 수로 이루어짐. <sup>17)</sup>
3. 장례식 종료	-조문객이 지참한 조문품에 대한 답례를 각 그룹에게 건네주는 의례가 행해짐. 이때 신부를 받는 집단보다 신부를 준 집단이 훨씬 유리하게 할당됨 - "파팡강의 목욕 의례"가 행해짐. 이 의례는 장례식 종료 후 남은 조문객과 파팡강이 강에서 몸을 씻는 의례로 금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 파팡강의 목욕 의례 후 관습가옥으로 돌아와 장례기간 중의 부정을 정화하기 위해 신관에 의해 기도 가 올려지고, 닭과 돼지가 제물로 바쳐짐. 이로써 장례가 끝난다.

12) 솜바섬의 전통 가옥은 좌측과 우측의 역할이 다른데, 좌측은 세속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며, 우측은 의례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한다.

13) 솜바섬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을 신부로 주는 집단과 신부를 받는 집단 사이가 혼인을 통한 결연관계가 되어 사회의 기초를 만든다. 또한 이 두 집단은 상호 재산 교환을 통해 결연을 다진다. 이러한 관계는 장례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14) 지석묘 축조비용이 마련되면 무덤축조에 사용할 석재를 찾고 석재를 주문한다. 채석작업은 20여명의 석공들이 철계굴봉, 망치, 도끼 등을 사용하여 채석하며, 지석묘 제작 중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물소나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15) 파팡강은 사자의 시중을 드는 역할로 항상 시신 앞에서 생활하며, 장례식의 다양한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노예가 선택되며 왕의 죽음일 경우 같이 순장된다. 파팡강 중 2명은 별한 의상과 장식품을 걸치는데, 일상복이 아닌 호화로운 직물을 걸친다. 이때 특이한 것은 일반사람과 달리 두건과 허리띠는 역방향으로 하고 몸을 감싸는 천도 사자와 같은 방향으로 감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줄을 왼쪽방향으로 꼬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6) 조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말을 주고받거나 물품을 직접전달하지 않고, 반드시 대변자(솜바어로 '칸데한'이라 함)를 통해 의례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한다. 이러한 간접성과 왜곡성은 솜바문화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17) 제물로 바쳐진 가족의 고기는 친족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문객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이다.

숨바섬 지식묘 장송의례의 대상은 모두가 ‘마라푸신’ 과 소통하는 것이며, 또한 지식묘는 ‘배’ 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축조과정을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전체적인 축조양상은 한국 지식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축조과정에서 나타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한국 지식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자료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숨바섬 지식묘의 장송의례는 사자를 “마리푸의 나라” 로 떠나보내는 과정에 대한 의례라 볼 수 있으며, ‘마라푸 신앙’ 을 중심으로 현실과 사후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배’ 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먼저 기본적인 장송의례의 사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은 사람은 지식묘에 매장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묘는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영혼의 배이다. 셋째, 추가장일 경우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선조의 지식묘에 매장하는데, 부모와 자식이 같이 묻히는 법은 없고, 조부모 세대와 손자의 세대가 함께 매장된다. 이러한 사상은 장송의례의 밑바탕이 된다. 기본적인 장송의례의 흐름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의 장송의례는 현재 숨바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옛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것은 아직 무덤의 모습이 지식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의례가 마라푸 신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송의례의 절차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장송의례의 패턴은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례식은 무덤축조와 같이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면,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부적인 의례양상을 살펴보면, 시신의 몸에 장신구를 부착시키거나 위세품을 부장하는 것은 사후세계에서 사자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웅크린 자세로 안치하는 굴장은 한국 지식묘의 장송의례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의례행위는<sup>18)</sup>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한국 지식묘 장송의례의 복원에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장례식과 관련하여 사자의 처리방법, 행사주관이, 비용의 분담, 조문방식, 공회제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 지식묘 장송의례의 빈 부분을 메워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시신의 처리방법이나 무덤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식묘는 1차장이 기본 개념인데, 숨바섬 지식묘는 2차장이 기본 개념일 때, 이와 연동되는 일련의 장송의례는 형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상호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빈(殯) 설치의 경우 숨바섬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빈(殯)의 존재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서로의 빈 부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sup>19)</sup>

18) 가축은 사자와 함께 사후세계로 같이 간다고 믿음.

19) 최근 탁자식 지식묘, 50cm 이상인 주형지석을 한 지식묘, 판석으로 깎 묘역을 가진 대형의 기반식 지식묘를 가 매장시설로 본 연구가 주목된다.(이영문 2011) 이는 한국 지식묘에서도 빈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 IV. 맺음말

지석묘 장송의례에 관한 연구는 지석묘 축조 집단의 사생관(死生觀)이나 조령관(祖靈觀)을 파악하여 청동기시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살펴보는 것뿐 만 아니라, 사자(死者)와 무덤 축조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당시의 사회구조와 문화양상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테마이다. 따라서 지금도 축조되고 있는 습바섬 지석묘의 장송의례를 통해 한국 지석묘의 축조기술이나 과정, 장송의례 등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 지석묘연구의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축적된 고고자료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족지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습바섬 지석묘의 장송의례와 한국 지석묘의 장송의례를 대략적으로나마 비교·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습바섬의 지석묘의 조사사례가 거의 없고 연구 성과가 부족하여 단편적인 양상으로 전체를 논하거나 일부 편중된 내용으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한 부분이 있다. 특히, 습바섬 지석묘의 축조시기나<sup>20)</sup> 분포양상에 따른 의례적 관계를 언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조사와 자료의 축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

20) 현재 습바섬 지석묘의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 섬들의 발굴조사나 인도네시아의 역사역구를 통해 습바섬 지석묘의 시원을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5~6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를 뒷받침할 유력한 사료나 증거는 없다.

【 참고문헌 】

- 가키야 아키코, 2009, 「서شم바섬의 거석묘 만들기」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숭바섬의 지식묘 사회』, 북코리아.
- 가중수, 2009, 「지금도 살아 있는 지식묘 사회 숭바섬」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숭바섬의 지식묘 사회』, 북코리아.
- 對外經濟政策研究院·地域情報센터, 1994, 『인도네시아 便覽』
- 요시다 야스히코, 2009, 「동شم바섬의 거석문화 -1975년에 진행된 돌 끌기 행사-」,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숭바섬의 지식묘 사회』, 북코리아.
- 윤호필, 2007, 「경기도 지식묘의 장송의례」, 『경기도 지식묘연구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지석묘 조사보고서 발간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경기도박물관.
- 윤호필, 2009,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대한 연구: 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1.
- 윤호필·장대훈, 2009, 「석재가공기술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무덤축조과정 연구」, 『한국고고학보』 70.
- 이동희, 2011, 「인도네시아 숭바섬과 한국 지식묘 사회의 비교 연구」 『湖南考古學報』 38집, 호남고고학회.
- 李榮文,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 李相吉,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 『古文化』 45,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영문, 2004, 「세계 문화유산속의 한국 지식묘」,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지석묘) 보존과 활용』, 東北亞支石墓研究所.
- 林永珍, 1981, 「인도네시아의 先史文化」, 『서울 大學校 인도네시아學術調查團 報告書』, 서울大學校.
- 조진선, 2010, 「인도네시아 숭바섬의 거석묘 조영과 확산과정」 『고문화』 7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몽룡·최성락편, 1997, 『인물로 본 고고학사』, 한올아카데미.
- Haris Sukensar, 2004, 「DOLMENS IN INDONESIA」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지석묘) 보존과 활용』, 東北亞支石墓研究所.
- Ron L. Adams, 2007a, 「Ethno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Megalithic Tomb Building in West Sumba, Indonesia」 『아시아의 지역문화와 문화교류』, 전남대학교출판부.
- Ron L. Adams, 2007b, 「THE MEGALITHIC TRADITION OF WEST SUMBA, INDONESIA: AN ETHNO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MEGALITH CONSTRUCTION」, SIMON FRASER UNIVERSITY.